

올해 충청권 철도망 확충사업, 3천626억원 투입

- 호남고속철, 경부고속철 대전도심 개통 비롯해 철도안전투자비 29% 증가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올해 호남고속철도 등 3개 건설 사업을 완공하고 서해선 홍성~송산간, 이천~충주 및 장항선 2단계 사업 등 4개 신규사업을 착공하는 등 충청권에 3천626억원을 투입해 국민의 증대를 위한 철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본부가 담당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는 3월 말,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은 6월 말, 포승~평택 구간은 오는 2월 중 개통 예정으로 3개 사업 모두 시설물 완공 후 개통 준비 중에 있다.

또한 본부는 철도 안전운영 확보 및 철도변 정주(定住)환경 조성 등을 위해 작년보다 29%가 증가된 867억원을 투자해 노후시설 개량, 건널목 입체화, 재해 시설개량 및 방음벽 설치공사 등 주민 밀착형 공사와 철도 안전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시행한다.

본부는 철도확충사업비 및 안전사업비 등 관내 철도사업에 총 4,493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대전·충청지역에 생산유발 9,766억원, 고용유발 8,267명의 효과를 기대한다.

노 본부장은 “국민들과 약속한 호남 및 경부고속철도 개통으로 지역의 철도 교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철도 건설 및 시설개량 사업비 4,493억원 중 상반기에 63%(2,831억원)를 조기 집행해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 및 대·중소 동반성장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SNS 기자단 ‘레일싱어’ 2기 모집

- 철도의 장점을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공유하는 역할 기대 -



홍보실(실장 신철수)은 철도로 인한 교통편의 증진,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철도산업의 부가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함께 공유할 SNS기자단 ‘레일싱어(Rail Singer)’ 2기를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다.

레일싱어 2기는 전국 대학생(휴학생, 대학원생 포함)을 대상으로 취재기자 20명, 전문적인 영상운용능력을 겸비한 영상기자 5명 총 25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오는 2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현장취재, 캠페인, 일일체험 등 다양한 팀별 및 개별미션활동을 수행하고 우수기자단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어질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인원들은 기자단 활동을 통해 철도의 장점과 필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철도투자확대 및 적기개통에 따른 교통편의 증진, 반나절 생활권 실현 등 철도산업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실시간 SNS소통으로 국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모집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 블로그(http://blog.naver.com/kr_blog),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RWay>), 트위터(https://twitter.com/KR_network)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방법은 공단 블로그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담당자 이메일(kr_blog@naver.com)로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최종인원은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평가를 거쳐 2월 16일 공단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 홍보(UCC·웹툰) 아이디어 공모 시행

-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반나절 생활권 실현을 국민과 함께 공유 -



홍보실(실장 신철수)은 3월말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대국민 참여형 『호남고속철도 홍보(UCC·웹툰)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난 2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시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참신하고 풍부한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 ucc와 웹툰을 제작함으로써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교통편의 증진,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효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활용하고자 시행하며 공모주제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시간단축·차량개선 등 편의성·안정성 향상에 따른 삶의 질 제고, 에너지·환경비용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 사람·지역·문화교류로 인한 사회적 통합 등의 효과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전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 블로그(http://blog.naver.com/kr_blog),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RWay>), 트위터(https://twitter.com/KR_network)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방법은 공단 블로그에서 참여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직접 제작한 작품과 함께 담당자 이메일(kr_blog@naver.com)로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성과를 국민에게 홍보하는 콘텐츠로 적합한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결과발표는 3월 3일 공단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당선작은 블로그·유튜브 등 SNS 및 호남고속철도 홍보관(광주충청역) 영상물 등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공모전에 대한 추가 문의는 담당자 전화(042-607-3075)를 이용하면 된다.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공단 홈페이지 내 '호남고속철도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



경영지원실은 2015년 상반기에 개통되는 호남고속철도에 대해 일반 국민들 궁금해 하는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철도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를 통해 지난 28일부터 ‘호남고속철도 정보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보관리처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풍부한 영상 자료와 36종의 이미지를 제공할 계획으로 접하기 어려웠던 고속철도의 안전설비, 노반, 전력공급, 신호, 통신, 고속차량에 대한 기술 자료를 포함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쉽게 설명한 호남고속철도 ‘궁금증 알기’, ‘묻고답하기(Q&A)’ 코너 개설해 국민과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보관리처 관계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통을 앞두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3.0 정책에 발맞춰 국민과 소통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설 명절대비 임금체불 해소에 적극 나서다

기획재무본부(본부장 박인서)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난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한건설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전국 317개 전체 철도건설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시행해 명절 전 임금체불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본부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공사임금 체불 해소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판단하고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종 근로자까지 임금이 정상 지급되는지 모니터링 해 나가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 철도 현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해소함으로써 임금 체불이 없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부에서는 작년 추석 명절에도 281개 철도현장에 대한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에 대해 사전점검을 시행하여 14개 현장에 대해 체불임금 및 장비·차량대금 미지급액 49억원을 원도급사에서 대납조치하는 등 추석 전 철도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이 정상 지급되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찾아가는 간담회」로 진정한 동반자의 길을 열다!

- 대한건설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공동모색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용)는 건설업계의 의견수렴 및 공단의 입찰/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2일 대한건설협회를 직접 찾아가 상생 및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시행했다.

간담회에서 김 본부장은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공단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그 동안 건설협회에서 건의한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전문공사 분리발주 철저한 공과평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개선, 공사 통합발주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건설협회에서는 공단에서 검토 및 적용하고 있는 ▲1사 1공구 폐지관련 낙찰자선정방식 변경 ▲종합심사낙찰제 평가방법 및 감점기준 변경 ▲전문공사 분리발주와 관련한 의견이 많았으며 공단에서 시범사업 시행 시 철저한 공과평가 등을 적용해 시공·품질관리, 하자책임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업계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다양한 건설업계 의견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검토,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으로 앞으로도 건설업계에 직접 찾아가 수시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육관리 영역에 성과공유제 시범 도입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지난 9일 사육관리 및 목포터널 상부건물관리영역 업체와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본부가 이번에 체결한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이 본부에서 요구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해당 업체와 계약을 연장해준다는 내용이다.

본부에서 성과관리제도를 시범 도입한 ‘사육관리 영역’과 ‘목포터널 상부건물 관리영역’ 입찰에는 전국의 많은 기업이 참여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 속에 계약자를 선정했으며 본부와 계약한 업체는 계약기간 중 1년 단위로 평가를 시행해 평가 점수가 일정수준 이상(85점)이면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 * 호남본부 사육관리 영역 : (주)크린텍총합관리(대표자 조영희)
- * 목포터널 상부건물 관리영역 : 진흥산업(대표자 주찬중)

이 본부장은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본부 내 사육관리 분야에 최초 도입해 시행하는 만큼 위·수탁기업이 win-win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여성 CEO인 크린텍총합관리 조영희 대표는 “본부가 좋은 제도를 도입해 준 만큼 향후 2년간 사육관리분야에서 고품질의 품질개선 서비스로 성과공유제 취지에 맞게 반드시 좋은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화답했다.